

※ 새로운 말: 질문, 언어, 예술

“자신의 새로운 말을 하러 왔던”, ... - 『악령』, 도스토예프스키

- = 러시아 문학은 풍요롭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에게 정체성을 확인해 오는 통로였다.
- > 외형 뿐 아니라 지금, 이곳의 우리들에게도 역시 ‘새로운 말’로 다가오기에 역시 풍요롭다.

질문

- = ‘지어낸 글’에 불과한 문학이 어떻게 러시아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문학이 뭐길래, ...
- 문학이 무엇이다 라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에 문학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문학 그 자체가 끊임없는 사유이고, 문학이 무엇 이냐고 묻는 그 자체가 이미 문학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 =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문제가 닫히는게 아니라, 문학이 무엇인가를 25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묻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또 다른 근거이다. 즉, 이는 생명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행위인 것이다.
- = 문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문학은 질문하는 행위이다 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지 모른다. 세상을 수용하고 반영하는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문학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문학은 규정과 제도에 반해, 언제나 시대와 불화할 수 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품고 있다.
- = 그렇게, 질문하기의 문학은 인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방식이다.

언어

- = 인간은 언어적 존재이다. 언어는 인간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틀 중의 하나로, 존재와 인식의 많은 부분을 지배한다.
- = 언어의 창조성은 집단 속에서 관례화(conventionalized)되면서 사회성이 부각된다.
- 이렇게 관례화된 언어는 낯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익숙한 기존의 것으로 환원하는 해석의 과정이다.
- = 언어는 기존의 관례와 인습의 총합이자 축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체의 정체성이 담기는 그릇이기도 하며, 또한 인간의 세계 인식의 매개이기도 하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예술

= 언어는 여럿이다.

- 자연어 ; 한국어, 러시아어, 핀란드어, 스와힐리어 ...

- 인공어 ; 교통신호체계, 수화, 경매장의 수신호 ...

- 이차어 ; 예술, 종교, 신화 등의 복잡한 인식 활동으로 이해 가능한 언어

= 예술에 속하는 문학의 언어는 특히 다름아닌 인간의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하나, 문학작품의 언어는 사실 전혀 특별하지는 않다.

= 다만, 문학작품 자체 내부에서 새로운 내적인 규율이 '생성되는' 언어이다.

- 문학작품은 읽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

- 『안나 카레니나』 등 작품의 파편이 아닌, 전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일부이자 또 다시 전체로 환원토록 하는 자족적인 매커니즘이 자체 내부에서 작동한다.

= 즉, 문학은 관례화된 언어를 소통되는 세상과 자족적인 매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예술작품으로서의 문학의 창조성의 상호긴장관계의 선상에서 그 의미를 다양하게(!) 끌어낸다.

= 이처럼, 기존의 전통으로 결합된 언어에서 출발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이런 문학은 인습화된 삶과 현실의 모순, 허상을 인식하도록 하며 그 모습을 벗겨내 진실의 모습을 보여줘, 우리가 이와 직시하도록 한다. 즉, 관례적 논리에 왜곡된 세계가 아닌 본래의 세계, 삶의 부조리한 모순의 비모순성을 확보케 하는 세계를 보여줄 수도 있다.

= '지어낸 말'이라는 허구,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사실의 역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도 사실이 아닌 거짓,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비록 아니지만 사실보다 더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 관례화된 언어의 구속에서 벗어나 늘 새로운("자신의 새로운 말"), 그래서 언어의 창조성을 간직하고 있는 문학은 기존의 경직되고 도식화된 삶과 세계에 맞서 항상 '질문'하며 바로 그 질문의 정신으로 문학은 영원한 것이다.

= 바로 이 현실에 대한 질문의 말, 러시아 문학이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그리고 타인들에게 기여해 온 삶과 생각의 방식이다.